

미래정책 모색 '구레비전 2030 미래전략 설계하다'

종합발전계획 수립 위한 토론회 가져



구례군은 12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군 정책자문위원,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구례군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구레비전 2030 미래전략을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2030년까지의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할 다양한 미래정책을 모색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번 워크숍은 먼저 종합발전계획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순천대학교 정순관 교수의 자치분권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이어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많은 위원들이 "종합발전계획은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수요조사, 지역특성 분석을 기반으로 미래변화의 흐름과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조화를 이룰 것"을 주문하였다.

각 부분별 정책제안도 이루어졌다.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와 산업전략, 인구문제를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구레만의 특화된 관광자원 개발, 농업·농촌 패러다임의 전환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과학과 기술 발전에 의한 사회변화와 대응전략도 강조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팜, 농촌교육을 근원적으로 살리는 미래교육정책에 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김순호 군수는 "구레비전 2030 종합발전계획은 미래변화에 대응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임"을 강조하며,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광양시, '광양읍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운영

광양시는 광양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이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 광양읍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교육을 7월부터 5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사업이 주민 주도로 운영돼 주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광양읍 도시

재생에 대한 방향성을 주민 스스로가 인지하고 지속적인 재생대학 강사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심화 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교육은 △마을 자원 아카이빙 실무 △게스트하우스 운영 △한옥 전문가 되기 △문화기획 △경관 만들기 실무로 구성됐다.

교육은 18일부터 오는 11월 28

지 매주 목요일에 총 20회 진행되며, 도시재생에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7일까지며, 메일(tran@naver.com) 또는 광양여고 앞 광양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직접 제출하고, 자세한 사항은 광양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061-763-8235)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승호 기자

여수시, 지속가능 관광 향해 힘찬 '첫 발'

여수시가 지속가능한 여수관광을 향해 힘찬 첫 발을 내디뎠다.

여수시는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관계 공무원, 자문위원과 용역사 관계자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김강수)이 맡았고, 사업 범위는 2020년부터 30년까지다.

용역기간은 올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며, 용역비는 1억 900만 원이다.

앞으로 용역사는 ▲ 여수관광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제시 ▲ 분야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 재정 및 투자계획, 파급효과 분석 등을 한다.

용역 결과물은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거쳐 올 12월에 완성될 예정이다.

권오봉 시장은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2026 여수세계박람회, 2040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35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과 연계한 관광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곡성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가 공모

곡성군은 주민이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곡성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내달 2일까지 접수 받는다.

곡성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구상하여 제안하는 상향식 공모로써 주민들 스스로 지역 문제의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웃 소통을 통해 공동체를 복원하며 마을을 행복한 살터로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사업유형은 지역산업, 지역교육, 지역복지, 지역안전, 문화역사, 다문화지원, 생활정비, 환경생태 8개 유형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5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5백만 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되고

선정된 단체들의 사업 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도 실시한다.

접수는 8월 2일까지이며 사업계획서 검토 등 면밀한 서류심사와 마을공동체만들기 위원회 발표심사를 거쳐 8월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곡성=김광희 기자

순천시 상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4회 연속 최고등급

순천시가 '201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상수도 분야에서 4회 연속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순천시는 시도 주관으로 평가하는 기초 상수도 111개 기관 평가에서 '가' 등급(26개 기관)을 받아 4회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으며, 전라남도 시군 평가기관중에서는 순천이 유일하게 '가' 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8개반 85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정책준수 등 5개 분야 25개 내외 세부지표의 점수를 매겨 성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했다.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안전·윤리·친환경 경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책임경영 분야를 비중 있게 평가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경영성과도 우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 노력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보여준 지방공기업이 각 유형별 상위 '가' 등급을 부여받았다. 평가 결과에 따라 순천시는 향후 환경부로부터 물관리 최우수기관 인증패와 포상금 등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군, '채동선과 함께 걷는 클래식 공연산책' 내달 공연

보성군문화예술회관은 오는 8월 1일 벌교읍 채동선음악당에서 채동선과 함께 걷는 클래식 공연산책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산책은 보성군 대표 합창단인 채동선 합창단과 젊은 클래식 연주자로 구성된 '양상블 디오'의 폴라보 무대로 꾸러지며 민족음악가 채동선 선생의 음악을 선보인다.

공연에서 선보일 프로그램은 새야 새야 파랑새야, 신아리랑, 수선화, 숨어 우는 바람소리 등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듣고 감상할 수 있는 서정적인 곡들로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민족음악과 클래식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우리지역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색다른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산책은 2019년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 선정으로 실시되며 문화관광체육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한다.

보성=안구일 기자

'고흥사랑상품권' 주민 설명회 개최

고흥군은 최근 군청 우주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직자, 관계기관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과 운영계획'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고흥사랑 상품권'은 고흥군에서 발행, 고흥군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지역화폐로써 오는 10월 25억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득증대를 통해 전통시장 및 영세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기홍 부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인 고흥사랑 상품권 제도가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

출 증대로 이어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흥사랑 상품권' 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관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였으며, 8월말까지 16개 읍면에서 순회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높았다"며 "고흥사랑 상품권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흥=한윤섭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항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